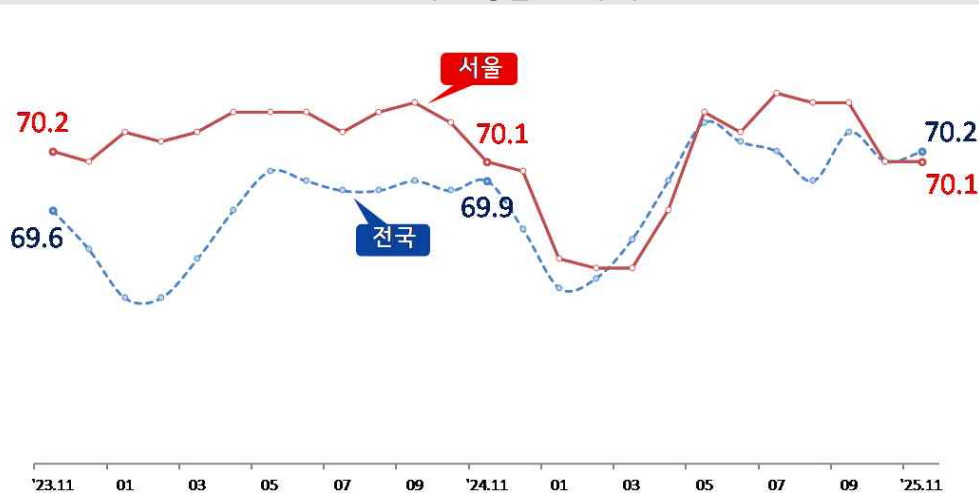


- ▶ 취업자(+8천명)는 소폭 증가 전환
- ▶ 고용률(61.8%, +0.2%p)은 상승, 15~64세 고용률(70.1%)은 전년동월과 동일
- ▶ 경제활동참가율(63.4%, +0.1%p) 상승, 실업률(2.5%, -0.2%p) 하락
- ▶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 7천명(-0.5%) 감소

(전년동월대비)		
	취업자 증가	취업자 감소
성별	여성(+3만 7천명)	남성(-2만 9천명)
연령	60세이상(+6만 3천명), 30대(+1만 1천명), 40대(+2천명)	청년(-5만 2천명), 50대(-1만 8천명)
산업	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6만 2천명), 도소매·숙박음식업(+2천명)	건설업(-3만 4천명), 제조업(-1만 2천명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8천명)
종사상 지위	자영업자(+2만 3천명), 상용근로자(+1만 2천명), 무급가족종사자(+1천명) 고용원 유 자영업자: +2만 3천명	임시근로자(-1만 7천명), 일용근로자(-1만 2천명) 고용원 無 자영업자: -0.2천명
직업	기능원(+7천명), 단순종사자(+5천명)	관리자·전문가(-7만 3천명), 기계조작·조립종사자(-6천명), 서비스·판매 종사자(-2천명)
취업시간	36시간 이상(+2만 4천명), 일시휴직자(+1만 8천명)	36시간 미만(-3만 4천명)

15-64세 고용률(%) 추이



전국

서울

(전년동월대비)

전체 인구 (주민등록)	5,112만 9천명 · 9만 8천명 감소(0.2%↓)	930만 6천명 (전국의 18.2%) · 3만명 감소(0.3%↓)
15세이상 인구	4,584만 8천명 · 22만명 증가(0.5%↑)	844만 9천명 (전국의 18.4%) · 1만 8천명 감소(0.2%↓)
경제활동 인구	2,970만 6천명 · 22만 9천명 증가(0.8%↑) - 경제활동참가율 64.8%(0.2%p↑) (월) 청년층 46.8%(1.3%p↓)	536만 1천명 (전국의 18.0%) · 2천명 감소(0.0%↓) - 경제활동참가율 63.4%(0.1%p↑)
취업자	2,904만 6천명 · 22만 5천명 증가(0.8%↑) - 고용률 63.4%(0.2%p↑) - 15~64세 고용률 70.2%(0.3%p↑) (월) 청년층 44.3%(1.2%p↓)	522만 4천명 (전국의 18.0%) · 8천명 증가(0.1%↑) - 고용률 61.8%(0.2%p↑) - 15~64세 고용률 70.1%(0.0%p)
실업자	66만 1천명 · 5천명 증가(0.7%↑) - 실업률 2.2%(0.0%p) (월) 청년층 5.5%(0.0%p)	13만 7천명 (전국의 20.7%) · 9천명 감소(6.3%↓) - 실업률 2.5%(0.2%p↓)
비경제 활동인구	1,614만 2천명 · 1만명 감소(0.1%↓)	308만 8천명 (전국의 19.1%) · 1만 7천명 감소(0.5%↓)

- 경제활동참가율(%)
인천(65.4) = 경기(65.4) > 대전(63.8) > 서울(63.4) > 광주(63.1) > 울산(60.9) > 부산(60.4) > 대구(60.3)
- 15~64세 고용률(%)
경기(70.4) > 서울(70.1) > 인천(69.6) > 부산(68.8) > 대전(68.2) > 울산(67.3) > 광주(67.0) > 대구(66.3)
- 실업률(%)
인천(3.0) > 대구(2.9) > 경기(2.7) > 서울(2.5) > 광주(2.4) > 대전(2.3) > 부산(2.0) > 울산(1.4)

총괄

고용률은 61.8%(+0.2%p)로 1개월만에 상승 전환

- 15~64세 고용률은 70.1%(0.0%p)로 전국(70.2%, +0.3%p)보다 0.1%p 낮음

실업률은 2.5%(-0.2%p)로 4개월 연속 하락하고, 전국 실업률(2.2%, 0.0%p)을 0.3%p 상회

취업자수

취업자(522만 4천명, +8천명)는 소폭 증가 전환했으나 건설, 제조업 및 청년층의 부진 지속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1)-13 (12)-12 ('25.1)-94 (2)-98 (3)-108 (4)-72 (5)4 (6)-22 (7)28 (8)29 (9)9 (10)-20 (11)8

* (전국) 취업자수(+22만 5천명)는 소비심리 회복 및 내수 개선세 등으로 예술·스포츠, 사업시설, 운수창고 등에서 증가폭 확대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1)123 (12)-52 ('25.1)135 (2)136 (3)193 (4)194 (5)245 (6)183 (7)171 (8)166 (9)312 (10)193 (11)225

산업별

-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은 증가세 지속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의 감소폭 완화
-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 지속

▶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6만 2천명, +2.7%)은 돌봄수요, 직접일자리 등 사업 효과 지속 영향으로 증가 지속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1)73 (12)111 ('25.1)93 (2)71 (3)75 (4)66 (5)105 (6)95 (7)132 (8)102 (9)71 (10)60 (11)62

▶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(+2천명, +0.2%)은 소비심리 회복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증가하나 증가폭은 축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1)-56 (12)-44 ('25.1)-84 (2)-68 (3)-35 (4)-3 (5)4 (6)1 (7)-16 (8)-2 (9)21 (10)3 (11)2

※ 소비자심리지수(CCSI): ('25.1)91.2 (2)95.2 (3)93.4 (4)93.8 (5)101.8 (6)108.7 (7)110.8 (8)111.4 (9)110.1 (10)109.8 (11)112.4

▶ 건설업(-3만 4천명, -10.1%)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13개월 연속 감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1)-5 (12)-14 ('25.1)-34 (2)-36 (3)-49 (4)-35 (5)-6 (6)-5 (7)-9 (8)-8 (9)-25 (10)-38 (11)-34

▶ 제조업(-1만 2천명, -2.8%)은 도심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17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1)-77 (12)-101 ('25.1)-104 (2)-99 (3)-131 (4)-145 (5)-129 (6)-117 (7)-82 (8)-45 (9)-19 (10)-10 (11)-12

▶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8천명, -0.7%)은 정보통신분야 기채용 영향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나 감소폭 축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11)52 (12)37 ('25.1)38 (2)35 (3)34 (4)50 (5)34 (6)10 (7)9 (8)-15 (9)-36 (10)-32 (11)-8

* (전국) 보건·복지(+28만 1천명), 사업시설관리(+6만 3천명), 예술·스포츠(+6만 1천명)등의 증가, 정보·통신(+2만 2천명)은 증가 전환
건설업(-13만 1천명)과 농림어업의 감소폭 확대, 도소매(+1만 1천명)는 증가폭 축소하고, 숙박·음식(-2만 2천명)은 감소전환

연령별

- 청년층(-5만 2천명)은 감소 지속, 50대(-1만 8천명)는 감소폭 확대
- 60세 이상(+6만 3천명)과 30대(+1만 1천명)는 증가폭 확대, 40대(+2천명)는 증가 전환

* (전국) 청년층(-17만 7천명)는 감소폭 확대, 40대(-9천명)는 감소폭 축소

60세 이상(+33만 3천명)과 30대(+7만 6천명)는 증가세 지속, 50대(+2천명)는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

종사상

- 상용직(+1만 2천명)은 증가, 자영업자는 고용원 有 자영업자(+2만 3천명)만 증가

지위 • 임시직(-1만 7천명), 일용직(-1만 2천명)은 감소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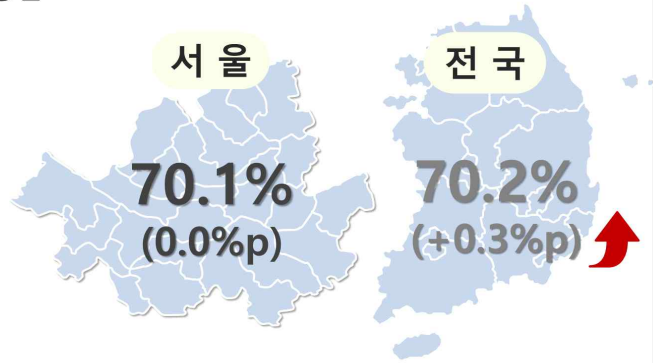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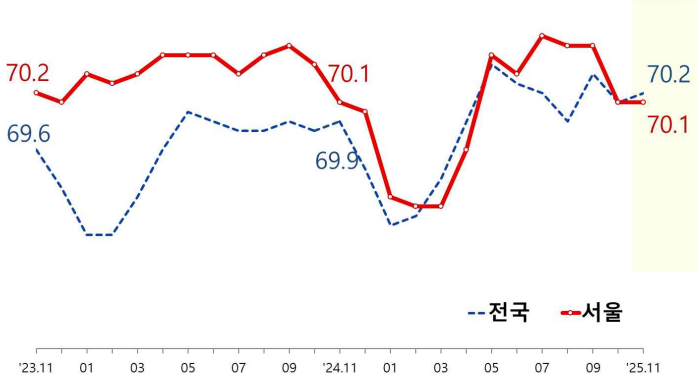
* (전국) 상용직(+25만 8천명), 임시직(+6만 5천명)은 증가 지속, 일용직(-2만 9천명)은 감소

고용원 有 자영업자(+7만 5천명)는 증가, 고용원 無 자영업자(-11만 2천명) 감소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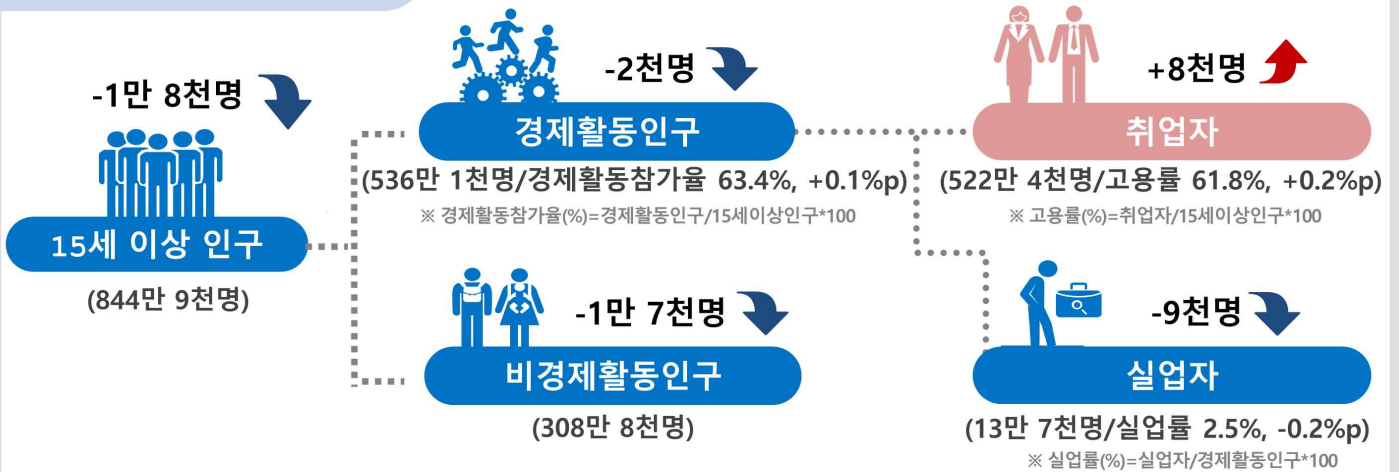


서울지역 고용동향

고용률(15~64세) OECD기준 ※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경제활동인구 구조 ※ 15세 이상 기준,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취업자수 증감 ※ 전년동월대비 증감(률)

